

2021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Ontact시대
질적연구의
동향과 전망

2021



한국질적탐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존경하는 연구자님께

2021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추진하였으나, 아직은 COVID19가 만연해 있는 현실에 부득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오니 회원 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OVID19는 우리 질적연구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연구가 멈추지 않아야 하며, 이전과는 다른 시각의 접근방법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춘계 학술대회는 온택트(On-tact)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 분야를 통해 논의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COVID19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질적연구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 이사님들의 도움과 회원님들의 참여로 준비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기에 여러분들은 편하신 공간에서 질적 논의의 장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질적연구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김영천 교수님의 기조강연 아래 ‘(자)문화기술지’, ‘내러티브탐구’, ‘사례연구와 현상학’, ‘포스트휴먼 질적연구 방법론’, ‘여성/가부장 문화 비판’, ‘비대면 시대의 교수학습과 테크놀로지’, ‘코로나 시대의 여가 및 자유주제 발표’의 일곱 가지 세션으로 학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분들께서 염원하시던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결정, 질적 연구법에 대한 실제적 강연을 온택트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한 연구분야의 발표자들을 모셨습니다. 온택트로 함께 소통해 주셔서, 질적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충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되길 소원합니다.

2021. 4.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장 **이철원**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위원장 **서광봉**

1. 2021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개요

안녕하세요?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원 여러분!

저희 한국질적탐구학회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2021년도 춘계 학술대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형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행사명:** 2021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 **행사일:** 2021년 4월 24일(토) 10시
- **행사방법:** 온라인 zoom링크를 통한 행사 진행
- **등록기간:** 2021년 4월 5일(월) ~ 22일(목)
- **주제:** Ontact시대 질적연구의 동향과 전망
- **주최/주관:** 한국질적탐구학회
-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BnPE2kufnZPtYwH8>



2. 2021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 Ontact시대 질적연구의 동향과 전망 일시 : 4월 24일(토) 10:00 ~ 17:20				
개회식 (10:00-10:20)	개회사 및 축사			
기조강연 (10:20-11:00)	기계 속의 인간 탐구: 포스트 휴먼 질적연구, 그리고 새로운 한국 연구자를 기다리며. 김영천(진주교육대학교)			
오전 세션 (11:00-12:30)	문화기술지/자문화기술지 좌장: 이동성(전주교육대학교)	내러티브탐구 좌장: 홍영숙(중원대학교)	사례연구/현상학 좌장: 정상원(춘천교육대학교)	포스트휴먼 질적연구 방법론 좌장: 정정훈(전남대학교)
	① 김미진(부산디지털대학교): 60세 여성의 자기실현 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② 김재윤(한국교원대학교): 학교 공간 혁신 참여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③ 이윤미(이리동산초등학교): 초등학교 통합교과 주제별 교과서 집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④ 이동성(전주교육대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의 마을공동체 기반 학교교육과정 개발 경험 탐구	① 최미(숙명여자대학교): 감정노동자의 직업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콜센터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② 윤영미(평택대학교): 자살유가족으로 살아낸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③ 홍은영(단국대학교): 말기 유방암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① 이지은(경북대학교): 고등학교 교양 교과 운영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② 심진섭(충북대학교): 성범죄 출소자의 출소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③ 장오선, 전병운(공주대학교): 장애-비장애 고등학생과 부모가 참여한 1:1 친구사귀기 프로그램의 현상학적 연구	① 박휴용(전북대학교): 포스트휴먼적 존재인식론에 기반한 질적연구의 성격과 방법 ② 한석진(한국예술종합학교): 포스트휴머니즘 시각에서의 춤 패러다임 전환 ③ 정정훈(전남대학교): 포스트휴먼 질적연구: 방법적 과정과 개념화
중식 (12:30-13:30)	중식 및 세션 이동			

오후 세션 (13:30-15:30)	여성/가부장 문화 비판 좌장: 김명찬(인제대학교)	비대면 시대의 교수학습과 테크놀로지 좌장: 이현주(이화여자대학교)	코로나 시대의 여가 및 자유주제 발표 좌장: 임진선(우석대학교)	
	① 이현진(계명대학교): 지방사립대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② 이주선, 김명찬(인제대학교): 데이터폭력 피해자의 주체적 사건참여 경험 : 무력하지 않은 피해자 ③ 주인석, 김명찬(인제대학교): 가부장 문화에서 성장한 한 남성의 자기개념 변화과정	① 조재성(진주교육대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대학 수업: 새로운 개념과 달라진 실재들 ② 이요바(충남대학교): 비대면 대학 수업에서 대학생들의 경험 연구 ③ 이선(진주교육대학교): 2020년을 기억하며: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④ 김경리(천안새샘초등학교): 희망의 테크놀로지에 숨겨진 비극: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불편한 진실들 ⑤ 전영국(순천대학교): 비대면 실시간 수업 탐구: 인공지능 강의 사례	① 한지훈(연세대학교): COVID-19 그리고 여가의 과제 ② 정성진(전북대학교): 현직 유아교사의 인성교육 경험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③ 이정표(동해중앙초등학교): 한 공립초 교사의 어린 시절 사립초 재학 경험에 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학교와 집의 공간적 의미를 중심으로 ④ 배정섭(건국대학교): 코로나 19로 인한 피트니스센터 참여자들의 참여변화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휴식 (15:30-15:50)	휴식 및 세션 이동			
워크숍 (16:00-18:00)	내러티브 탐구 논문 작성	질적연구와 질적연구자: 하기(doing)에서 되기 (becoming)로의 전환	질적자료 분석	자문화기술지
	홍영숙 (중원대학교)	김명찬 (인제대학교)	정상원 (춘천교육대학교)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워크숍 A: 내러티브 논문 작성

홍영숙(중원대학교 교수)

홍영숙 교수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TESOL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캐나다 앨버타대학교에서 교사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기초를 만든 Clandinin 교수의 지도학생으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에 대하여 수학하였다. 현재 한국질적탐구학회를 비롯한 질적연구 관련 학회 및 영어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편집위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러티브 탐구와 박물관 교육(박물관 교육과 질적연구, 2015)>, <내러티브 교육과정 메이커로서의 교사의 삶(교사의 재발견, 2016)>이 있으며, 교사정체성 및 내러티브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등에 관한 다수의 내러티브 질적 논문과 최근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2020>라는 기고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또한 홍교수는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및 실제』 관련한 전국 규모의 워크숍/특강을 60회 이상 수행한 바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좋은 내러티브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본질적, 이론적 이해를 근간으로 한 내러티브 논문의 각 구성 항목 작성과 그에 따른 글쓰기 오류, 각 항목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워크숍에서 다루어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 논문의 구성 및 각 항목 작성 가이드

1. 【연구 주제/논문 제목】 정하기
2. 【연구자의 내러티브(Narrative Beginnings)】 작성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작성
4. 【연구 퍼즐】 구성
5. 【이론적 배경/선행 연구】 작성
6.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작성
7. 【내러티브 풀어내기(Narrative Accounts)】 작성
8. 【경험의 의미】 구성
9. 【결론: 요약, 논의, 제언 등】 작성
10. 【내러티브를 마치며】 작성 - (선택사항)
11. 【발췌문 기술 방식, 참고 문헌 기록 방식】에 대하여

□워크숍 B: 질적연구와 연구자: 하기(doing)에서 되어지기(becoming)로

김명찬(인제대학교 교수)

김명찬(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은 상담자 발달에 대한 질적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부터 한국질적탐구학회 편집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발표자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삼는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에 관심이 있으며, 상담자 발달, 인간중심 상담 이론 등의 주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총 56건의 학술지와 한 권의 저서를 발표 및 출간했으며, 학술지의 상당수는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질적연구이다.



국내의 질적연구는 단시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질적연구가 지닌 가치나 의미,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이유 등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발표자와 참여자는 본 워크숍을 통해 “질적연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것(doing)과 연구자가 되어지는 것(becoming)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들은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는지 탐색해 볼 것입니다.

질적연구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는 이유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질적연구의 의미: 일상을 다른 눈으로
2. 질적연구의 수행: '선입견'에 대한 자각과 인식, 그리고 타당성의 검토
3. 질적연구 수행의 난점: 하기(doing) 또는 방법론에의 몰두
4. 질적연구 수행의 전환점: 되기(becoming), 또는 되어지기
5. 질적연구의 가치: 연구자 자신의 변화 또는 성장

□ 워크숍 C: 질적 자료분석

정상원(춘천교대 교수)

정상원(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은 교육과정 이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질적자료분석: 파랑새 2.0 소프트웨어(2016, 아카데미프레스)』, 『질적연구방법론 V: Data Analysis(2017, 아카데미프레스)』, 『질적연구아틀라스: 15가지 성공전략(2019, 아카데미프레스)』 등이 있으며, 최근, 『한 초임교수의 쿠레레 탐구(2020, 내러티브와교육연구)』를 발표하였다.



질적 자료분석은 질적 연구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자들, 특히 초보 질적 연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과업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이 워크숍에서는 질적 자료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에 대해 살피며 질적 자료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적 자료분석과 관련된 절차 및 기법을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질적 자료분석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워크숍에서 다루게 될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적 자료 분석의 개념: “질적자료 및 질적 자료분석의 개념과 그 유형”
2. 질적 자료분석의 논리: “귀납, 개연적 삼단논법 및 분석적 귀납”
3. 질적 자료 분석의 절차와 방법: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그리고 분석적 메모”
4. 다양한 질적 연구전통에 따른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생애사 및 내러티브”
5.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 “파랑새 2.0을 중심으로”

□워크숍 D: 자문화기술지

이동성(전주교대 교수)

이동성(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교사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질적탐구』 편집위원과 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자문화기술지, 생애사 연구, 사례연구)을 중심으로 학교사회학, 교사사회학, 교육과정사회학, 작은 학교를 탐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2판(2020)』,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2018, 세종도서)』, 『생애사 연구(2015, 세종도서)』 등이 있다.



자기-연구(self-study)의 우산 아래 있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최근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문화기술지의 방법적 정당성과 엄밀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따라서 이 워크숍의 목적은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기초, 절차와 방법, 방법적 이슈에 따른 글쓰기 전략, 적용 사례, 평가준거를 상세하게 학습함으로써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질적 연구자의 방법적 전문성과 민감성을 기르는 데 있다. 학습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기초: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2. 자문화기술지의 세부 절차와 방법: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
3. 방법적 이슈에 따른 자문화기술지 쓰기: “재현과 정당성 위기, 그리고 글쓰기 전략”
4. 자문화기술지 적용 사례: “기억의 예술로 마트료시카(Matryoshka) 만들기”
5. 자문화기술지를 가늠하기 위한 평가준거: “연구 설계에서 글쓰기까지”
6. 자문화기술지 기반 연구 설계 실습: “나만의 연구 모래시계 만들기”